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評壇漫筆、 露國의東方政策과中國革命의特質 (十一)

上海에서 梁明

一

三民主義의唱道者요 國民黨의創設者인 故『孫文』동무는 中國이나흔世界的大革命家이엇섯다 中國國民黨에잇서서의그의地位는 露國共産黨에잇서서의「레닌」동무의地位와彷彿하엿다 그는 中國國民黨의理論的指導者인同時에 事實上指導者이엇고 黨內의모든同志들에게서 絶對的信望을밧는同時에 거진獨裁權을行使하엿섯다

이제第一次全國代表大會에서 通過된 中國國民黨의『總章』을 본다면『總理』라는章下에 다음과가튼條文이規定되어잇다

(一) 本黨은 三民主義와五權憲法을 唱道實行한孫先生을 總理로함

(二) 黨員은반드시 總理의指導에依하야 主義의進行에努力할것

(三) 總理는 全國代表大會와中央執行委員會의主席이됨

(四) 總理는 全國代表大會의議決에對하야 再次審議케할權이잇슴

(五) 總理는 中央執行委員會의議決에對하야 最後決定의權이잇슴

또一九二六年一月의第二次全國代表大會는 總理紀念의儀式을다음과가티決定하엿다

(甲) 本黨海內外의 各級黨部의會議場所에는반드시總理의遺像을懸掛할것

(乙) 모든集會의開會時에는 반드시總理의遺囑을宣讀할것

(丙) 本黨海內外各級黨部及國民政府所屬各機關各軍隊는 반드시每週一次의 紀念週를擧行할것

但 特別한情形이잇슬때는그 地方上級黨部의許可를어더서二週一次로곳칠수잇슴

孫文동무는非但 三十餘年間을中國革命을爲하야 心血을傾注하엿고 百折不屈하든 그의勇力과 그의遠大한抱負에잇서서 偉大하엿슬뿐이아니고 實로그의先見에잇서서 그의精神에잇서서偉大하엿섯다 그는三十餘年間을恒常 中國에잇서서가장잘民衆의要求를理解하엿고 左翼의革命精神을代表하엿섯다

그는지금부터二十餘年前부터 『中國革命同盟會』創立以前부터 『三民主義』와『五權憲法』을唱道하면서 『民生主義』는 지금은그러케緊急한問題가아닐것갓지만 未來에잇서서가장重大한問題가될것이라」하엿섯고 第一革命當時에는北洋軍閥의代表袁世凱와의妥協과對內的諸施設에잇서서의 宋敎仁等의所謂『現實派』와 恒常意見이 不合되엇섯다

一九一八年에그가 岑春暄等政學會의一派와政見不合으로 首席總裁의職을버리고 廣東에서上海로歸來하엿슬時에 露西亞十一月革命의報를듯고 當時의一般輿論이모두그의長久치못할것을미덧섯고 別別中傷的報道가 盛傳되엇슴에不拘하고그는혼자서 그의最後勝利를確信하엿섯고危險을무릅쓰고米國을經由하야『레닌』동무에게 祝電을보낸일이잇다

一九二一年에그가 廣西桂林에서『마린』을만낫슬때에는赤露의모든情形을듯고 레닌의新經濟政策이自己의『民生主義』와一致된다하야 拍手하기까지하엿섯고 一九二二年上海에서『요페』를만낫슬때에는聯名의宣言을發表하는同時에 蔣介石을赤露로派遣하야 赤衛軍을視察케하고 廖仲凱를熱海로派遣하야 「요페」와熟議케하엿고 國民黨의改組及軍官學校의設立을相議케하엿다 特히一九二四年春의 國民黨改組當時와 以後는恒常左派의主張을支持하는同時에 汪精衛 廖仲凱 譚平山等을가장信任하엿섯고 臨終時에는黨員에對한遺囑과同時에 赤露에對하야 長文의遺書를보내엇다

그러나그는 죽을때까지共産主義者는아니엇섯다 赤露를唯一한友邦으로 信賴하엿섯고右派의모든中傷과 反對를不拘하고共産黨員을 國民黨內로 얼어들이기는하엿지만그自身은共産主義者가되지안코죽엇다 그가죽기일마前神戶에서한講演錄을본다면『西方文化는覇道로되엇고 東方文化는王道로되엇다』하야中國固有한文化를자랑하엿섯고 또그일마前 廣東에서한『民族主義』의講演錄을 본다면『中國民族을民族的으로團結하는가장容易한方法은 姓으로基本을삼음이라』하엿다 卽李氏는李氏끼리 王氏는王氏끼리모히어서 血族的團結을지음이라하엿다 그의倡導하고 그의提唱한『三民主義』中의『民生主義』도『共産主義』와는決코斷離가될것이엇섯다

潰走하는山東軍을 三面으로追擊

◇山東軍은徐州에集中 革命軍態度는積極的

(上海二十九日發) 江蘇를抛棄한山東軍은徐州에集中하엿는데 此에對한革命軍의追擊은

一、何應欽、程潛兩軍으로하야금南京鎭江으로부터北上케하고

二、李宗仁軍은蚌埠로부터北上케하고

三、唐生智軍은武漢으로부터京漢線을따라北上하야孫傳芳의敗殘兵을驅逐케하면서北伐의途에就키로하엿다더라

日本은方針決定 二十九日閣議에서

(東京電) 二十九日閣議終了後最初의閣議에서幣原外相과財部海相으로부터南京騷擾事件에對하야經過를說明한後大體今後交涉方針을左와如히決定하엿는데具體的方針은臨機하야應急措置를取하기로하엿다더라

一、解決은法은武力에依치아니하고平和的手段으로할것

二、交涉地點은上海로하고損害其他實地問題는南京에서交涉할것

三、交涉의對方은蔣介石氏를責任者로하고矢田上海總領事森岡南京領事及田島副領事로써當케할것

四、交涉題目으로上海南京及沿江各地의治安回復과今後의治安維持와를蔣介石氏에게하게하고其次에損害賠償要求及今後日人의生命財産保護의保證을밧기로할것

矢田總領事에 交涉訓令

(東京電) 外務省은本日閣議의決定에基하야矢田總領事에對하야蔣介石氏에對하야暴行兵의處罰、國民政府의謝罪、損害賠償等에對하야交涉하도록訓令하얏다더라

秩序補充時外지 此以上讓步不能 英國外相의言明

(倫敦廿八日發) 英國內閣은本日對中政策에對한協議를爲하야閣議를開하얏는데「지엠버렌」外相은下院에서上海今後의形勢는列國의商議에依하야決定될것이라고述하고又附言하야曰現在中國과如히無政府的狀態로서는有效하게此를交涉할수가업슴으로何等의交涉도進行하지안는다 中國의政府當局의秩序를補充하기까지는英國의中國에對한其權利는現在以上讓步할수가업다고하얏더라

英政府臨時閣議

(倫敦二十八日發) 英政府는臨時閣議를열고上海의排外運動의惡化에對하야協議하엿더라

米陸戰隊增派 四月中到着

(華府二十六日發) 米國政府는中國現狀을顧慮하야今日陸兵千五百을中國에派遣하기로決하엿다 또한國務省發表에依하면海軍陸戰隊의一部에動員令을發하엿슴으로이것도直時派遣될터이며巴奈馬運河에碇泊中인海軍運送船『헨더손』號는『칼리포니아』의『산자고』港에會合命令을바닷는데此는太西洋海岸의根據地에서太平洋岸에陸戰隊를搭載코中國에向하기爲함이라더라

昨夜는頻頻히在中東洋艦隊司令官「윌리암스」少將으로부터事態가急함을報告하엿슴으로大統領「쿠릿지」氏는今朝는早起하야政府의要求에承諾을與한外에 米國은다시陸戰隊를增派하기로決하엿는데國務省에서는此增遣隊는四月中에는中國에到着되지못하겟슴으로中國現狀은依然히安定될希望은업다는意見이다 陸軍長官「데비스」氏海軍長官「윌버」氏는國軍參謀本部와長時間에亘하야協議를하엿는데海外의陸軍軍隊外지도亦是派遣되리라고觀測되더라

英米兩公使 芳澤氏訪問

(北京廿八日發) 南京事件에非常히九盤한英米公使는廿六日芳澤公使를訪問하고南京事件의解決에日英米가協同키를要求하엿는데芳澤公使는英米와는立場이다름으로는同一步調를取치못할事情이잇슴으로協同調査를拒絶한모양이라더라

朝鐵內訌調停

(東京電) 朝鮮鐵道會社의內紛에關하야미리부터憂慮하든根津嘉一郎氏는井上準之助氏를動케하야此의調停을行하라하야二十八日同社幹部大川、前山氏等을訪問하고懇談한바잇섯는데紛糾된會社의內訌도或은一段一變도을解決될지도不知라고觀測한다더라

新島場電話 取扱期間延期 四月부터十一月外지로

平北楚山邑內를通하는鴨綠江岸沿新島場電信電話所는每年四月부터十月外지開設키되엇든바船舶航行業者로부터의要望도잇서本年以後로는四月부터十一月外지開設키로變更되엇더라(楚山)

湖南四團體 聯合懇談會 新幹會支持와 靑總紛糾問題等討議

湖南線芙蓉驛前에서四團體聯合懇談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二十五日芙蓉驛前金京辰氏家에서出席代表三十餘人과多數傍聽裡에서聯合懇談會를開하고地方農村純補君의司會로開하고地方의狀況報告가잇슨後左記事項을決議하고全崎煥鄭乙兩君의朝鮮靑年運動에對한感想談으로閉會하엿다더라(裡里)

◇決議事項

一、靑總紛糾에關한件

今般朝鮮靑年總同盟의紛糾는派閥鬼의最後發惡으로認하고運動線上에서徹底히驅逐할것

一、新幹會에關한件

가、新幹會는民族的單一黨으로支持할것

나、新幹會의事業進行을促成할것

다、本地方에新幹會支部設置를促進할것

一、新運動方針樹立의件

政治運動을是認하고門戶를開放하야運動의能率을伸長할것

尙州靑聯 定期大會 重要問題決議

慶北尙州郡郡內靑年運動의統一的指導機關인尙州靑年聯盟第三年定期大會는去廿七日尙州靑年會館에서池環宰氏司會로開하고臨時議長李玟漢氏로選擧한後前回錄朗讀及各部經過報告와各加盟團體의狀況報告가잇슨後議案第一로靑總紛糾問題도長時間을討議하다가現靑總紛糾解決策으로가장公正適當한方針(略)을新任執行委員에게一任하야靑總에至急提議하기로하고新幹會問題에至하야는다贊成의意를表하고機關紙刊行等左記諸事項을決議한後執行委員을選擧하고同四時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尙州)

◇決議事項

一、靑總紛糾問題의件

新任執行委員會에서適當案을作成하야靑總에提議하는同時에一般靑年團體에公表할일

二、新幹會에關한件

三、機關紙發行의件

既決된尙靑發行의機關紙에는各加盟團體에서月刊하되其費用은左와如히分擔하야八月內로納入하기로決定할일▲尙州靑年會五十圓▲咸昌靑年會二十五圓▲勞働靑年會二十圓▲玉山靑年會二十圓▲中牟靑年會二十圓▲化寧靑年會十五圓▲龍院靑年會十圓▲其他는收入으로補充

四、靑年運動의改革件

五、各加盟團體組織의件

六、規約修正에關한件

七、會員問題에關한件

八、新幹會에關한件

九、加盟團體受理의件

十、執行委員選擧의件

大同江船運 紛料遂解決 調停案六條締結捺印 雇主側船運組合員解雇事件

平壤大同江船運勞働組合에서는雇主側인丸福運輸組에서船運勞働組合員二百餘名을無理히解雇하엿다는理由로雙方의紛料가繼續되어온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二十八日丸福組代表佐藤氏와勞働組合代表金大學氏外二人이警察署로會合하야交涉하엿스나圓滿한解決을엇지못하고丸福組側으로부터佐伯署長에게一任하기로極力提唱함으로勞働組合側에서도이에應하엿든바六時頃에左와如한調停案으로同勞働組合員全部가卽時復業키로決定하엿다더라(平壤)

◇調停案

一、大正十五年八月二十五日丸福運輸組와大同江船運勞働組合사이에締結한覺書는疑問點이만흠으로今回와如한問題를惹起케된것은甚히遺憾으로認하고一切廢止하고更히覺書를作成할事

二、丸福運輸組合에서使用하는人夫는全部大同江船運勞働組合員으로雇用할事

三、丸福運輸組合에서今回에新募集한(昭和二年三月二十日을限함)船夫는大同江船運勞働組合員이나또는將來에同組合員이될자는今回에罷業에加擔한者이라도大同江船運勞働組合에서承認하는同時에大同江船運勞働組合에加入할것을丸福運輸組에서는承認하고其他는卽時解雇할事

四、雇主인丸福運輸組와被雇人船夫間에締結한個人契約은丸福運輸組合과大同江船運勞働組合사이에締結된覺書나또는本調停案에抵觸치안토록할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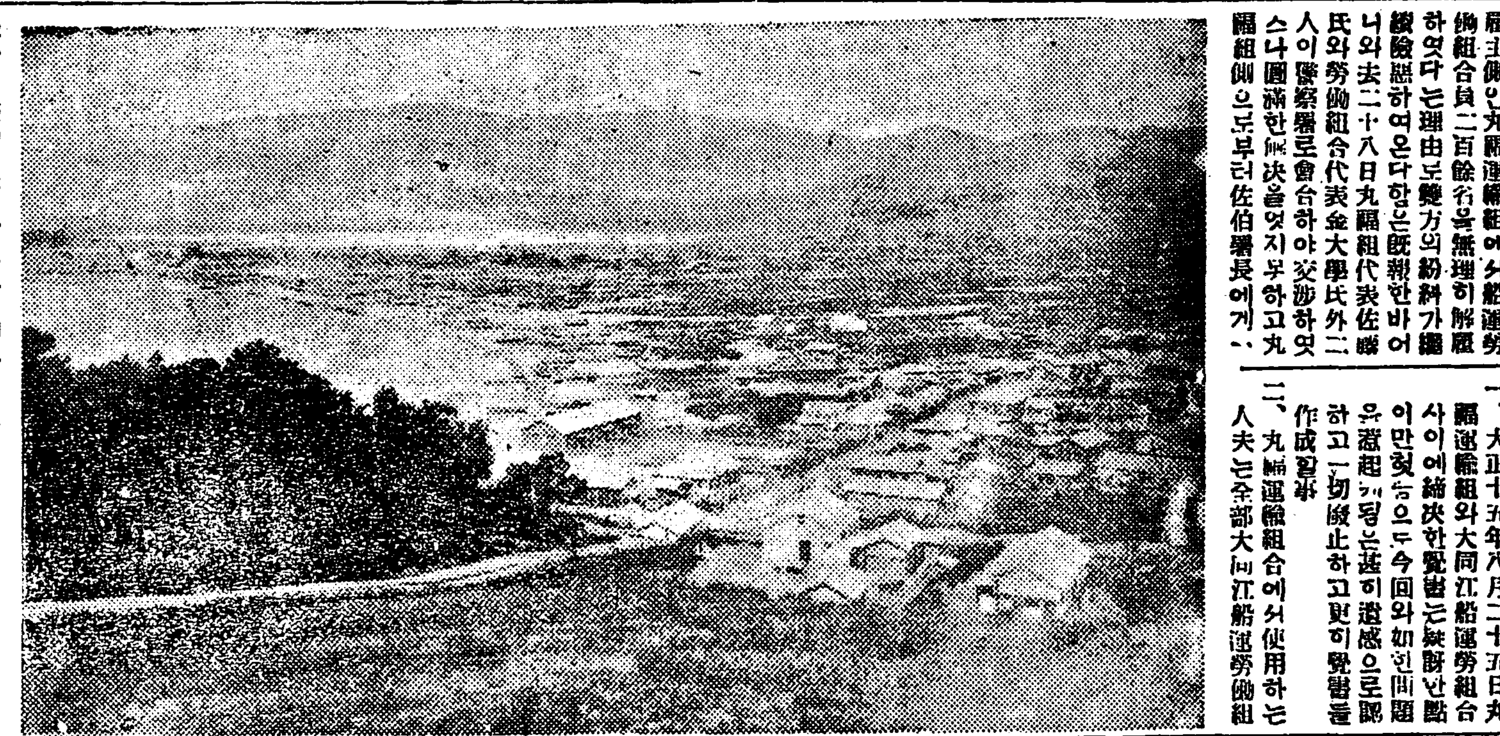
五、丸福運輸組合에서는本年中昭和二年結氷期는本調停案第二項(船夫選擇)을施行치못하는同時에大同江船運勞働組合에서도此期間內에는現雇傭條件을尊重히하고組合員인船夫로하여금勤實히其業務에就케할事

但結氷될時는無數로한事情이잇슬時는本調停者에게申告하야適當한處理를求할事

但天災地變에依하야特別한事情이잇슬時는本調停者에게申告하야適當한處理를求할事

六、前年乘船從事에從事한者는可及的翌年에도其船에乘船케할事

新히運輸組를增加할時는丸福運輸組와大同江船運勞働組合과互相協議하야乘船者를決定할事



地方紹介 (九) 東海岸屈指의 貿◇易◇港 雄基港 其一

最北端에僻在

「雄基」라는地名이이世上에알리기는極히最近의일이다 이는雄基라는地方이元來交通機關이極히不備하고人文이尙今未開한北朝鮮의最北端에僻在하야아직그이름이世上에實傳되지못한外에이라하기보담도 元來雄基는그地名이이世上에나타난지얼마오래되지안흔外다에 라할것이다 지금은「雄基」라하면東海岸四大港의一로指稱되며

또한日中露三國의 貿易港으로世上에이름이놉흔거니와 距今十三年前 卽大正三年以前外지도慶興府의海面이란一部로서戶數거우數十戶를가진極히蕭條한一個漁村이엇섯다한다 當時의이곳은荒蕪한草田에十數戶의草屋이쓸쓸하게흐터저잇고波濤치는海岸에는白衣의沙工들이도때치는소리가凄凉히들릴것이엇다고 그러나 이러한곳을언제든지未開地대로그대로放棄하여두지는안햇나니 大正三年三月에咸鏡北道令으로各面의名稱과그區域이

비로소雄基面

變更되는바람에從來慶興府海面의一部에附屬되엇든이곳은 이란名稱을가지게되고面內에七個洞을管轄케된것이다 元來이곳은海岸으로는海上風浪이險惡할때에船舶의避難所도되고漁船의碇泊處도되어外部의內經을엇게되고 陸으로는露領方面으로出稼或歸還하는勞働者들의停留處가되어外來者로由하여가끈맥게하든一便 此地漁業에着眼하든이 或告한以後 日露戰役의終局日人數名이 移來한것을뒤니어또한彼等雜貨商의鋪를接하여來하드니 兩聞 이곳에는數十名의日人居住者를보게되엇든것이다 그때이것이機會로大正元年에는朝鮮郵船會社가航路를取하게되고 그에따나船이곳外지延長하고 代理店이設置되더니雄基라는이름이널이갈스록世上

移住者의增加

사람에입에오르나리게되어漸次로보게되엇것이다 그後大正十年에貿易指定港으로開港됨과同時各官公署의移轉 軍馬補充部의設立等이當地發展에絶好한機運을與하야商人勞働者가每日潮水가티밀려든것이다 드듸여今日의雄基를建設하고만것이다 아! 變遷이無常한世態여! 數十年前거치荒凉한草原에十數의草屋이흐터저잇든곳에지금은千戶가넘는長方形의華麗한新市가누어잇고쳐비가튼漁船만소리업시드나들든海內에는검은連氣를吐하며우렁찬汽笛을울리는大汽船이連日輻輳하나陸에는自動車의엔진소리 海에는汽船의汽笛소리가단질사이업시사람의귀를째게하니 萬一十數年前에이곳을보고간사람이또다시이곳을보게된다면그

急速한變遷

에應當 瞠目驚倒할것이다 그러나雄基의繁榮은決코現在에만그치고말것이아니다 將次몃倍몃十倍의大發展을할만한可能性이넉넉히보이는것이다 아모리한大雄基가建設된다할지라도「生」의劣敗者인우리에게何等의利潤이야잇스라마는 이地方의現在를調和하고將來를推斷하는것이이紹介文의本旨인만큼어가는形勢를간출수는업는것이다 이에우리는將來의繁榮을말하기前에爲先新興하는이雄基의現在부터解剖하여볼必要를認定한다(繼續)

◇寫眞은雄基港遠望의一部

本報五個月分進呈 (平壤府紹介) 投稿者平壤 金熙綽

水原印刷會社의 職工十餘名盟罷 同志中離叛者가잇서 擧事도前에犧牲者만내엇다

水原印刷株式會社의職工十餘名은去二十二日午後六時에某處에會集하야會社當局者의無理한措取行爲와人權蹂躪的인非行을糾彈反抗코자陳情書를提出하는同時에陳情條件에不應할時는盟罷를斷行하기로決議하엿다가同志中離反者의突出로因하야成事도못하고몰니어犧牲者五名만내엇는데그詳細한內容을調査하야보건대前記社當局者日人舂山某는職工을自己의奴隷가티녁이고牛馬視할뿐만아니라온갓非行과屈辱的事實을隱匿且重하고職責에忠實하든職工들도正義感과反抗心이爆發되어一同은結束的으로會社當局者의反醒을促하는同時에待遇改善과就務時間의正確及無理한償金削減의廢止와積立金銀行拱托等의條件을要求하고자陳情書까지作成하야具體的으로目的을達成하려고하엿는데離反者가突出하야會社側에附同하야同志와一致한行動을取하지안코會社側의職工 犧牲되엇다더라(水原)

002462

東滿靑年 大會禁止 日警察署에서

間島龍井東滿靑年總聯盟에서는去廿六日에第二回定期大會를開催하려하엿든바日本警察署에서禁止하엿다더라

連山普校 移築問題 道當局諒解로 面民側勝利

旣報=郡當局의曖昧한對答으로畢竟連山普校移築期成會委員與仁燮李鍾寬朴昌來氏外十數人은去十八日忠南道知事를公州道廳으로訪問하고移築認可를懇願하엿든바事理當然함을共鳴하는同時에新學期도不遠한外다에速히決定케하야주겟다는誠意잇는對答이다더라

鐵原童話劇盛況

鐵原郡寅目面承陽里에잇는私立東一學院維持에收入이업서經費困難으로因하야一般社會에同情을要求코자童話劇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去廿八日午後八時부터鐵原靑年會館內에서學生一同의院歌로開會한後學生中李致福君의意味深長한趣旨說明이잇슨다음童話劇『白雪公主』와『우리집자랑』이라는講演은二百餘觀衆에게만흔感想을준後同十一時頃大盛況裡에無事閉會하엿는데東一學院의前途를爲하야後援團體의同情金外지잇섯다더라(鐵原)

잇섯슴으로同委員諸氏는方今連日山面에居住하는十餘戶의日人一團은이것을機會로하야反對하는模樣인데그理由는그들은大槪東拓移民으로도學校가移轉하게되면그들의日用品을供給하는外다에또日人小學校도移轉하게된다하야反對하는模樣인바적어도面民九千四百의敎育問題를十數戶의日人生活關係가剛面에서牽制하고잇다하면實로重大問題라하야一般은매우注目하는모양이라더라

移築運動으로 卒業生會蹶起

母校의移築問題는年來懸案으로多額의經費補助와巨大한寄附가잇는이機會에面內全體의便益을爲하야當然移築하여야된다고該校卒業生會에서는去廿三日臨時總會를開하고滿場一致로移築贊成을可決한後바로宣傳「비라」도뿌려少年을살리라!面內中央에敎育機關을두어라!하는意味의示威行列을自働車로하엿다는바今後期成會와行動을一致하야同運動을促할모양이라더라(江景)

衛益水組 創立取消 面民不安一掃

安邊郡衛益面長成璜永과會計員朴漢鵬은不正事件으로去十三日面民大會에서不信任을當하얏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衛益水組는創立코저同面事務所에殺到하든日人들도民衆의抑壓에自覺하고面職員과共히退去하엿슴으로面民一般은勿論이오水組創立準備의一大不平問題로民衆이數月間大騷動을繼續하야總督府와道當局에奔走陳情하든關係地主와作人들도近日에는不當한水組創立이確實히取消되엇다고高枕하는데萬一創立問題가再發할時는廢還할지라도決死的反抗을할計劃이라더라(安邊)

召集하고저共同幹部一同의周旋勢力으로도勝手準備가着着進行中에잇섯는데日本總領事館으로부터突然禁止命令이잇서幹部一同은憤慨하야이나交涉하엿스나結局失敗에돌아가고말엇다는데當局者의自來로는幹部一同과衝突될念慮가잇다고하는데最近市內各學校生徒의感動이자조잇는時期로日中官憲에서協力取締關係다는것과潮流者들의態度가넘우極端의現狀이라는것等이라더라(間島)

蔓延되는 腸窒扶斯 統營에도發生

統營에서는腸窒扶斯患者가續出되어市內에만八名의死亡者를보게되엇는데其中三名은避病院에收容治療中이라더라(統營)

各道評議選擧

統營 道評議員選擧는去十九日統營郡廳에서各面協議會員의參席下에開票한結果七十七票의最高點으로金炫國氏가當選되엇고

慶州 道評議員選擧는去二十三日郡廳會議室에서開票한結果崔鉉俠以外와崔潤南氏가當選되엇고(慶州)

端川 咸南端川郡에서는去十五日道評議員改選投票를行하고同十八日開票한結果最高四十三點으로沈亨變氏가當選되엇고

甕津 道評議員選擧는去二十一日郡內各面에서投票한바五十五點으로盧蒼漢氏가被選되엇고(甕津)

康津 郡評議員選擧는去廿三日同郡廳內에서開票한結果尹鍾氏가最高三十六點으로當選되엇고(兵營)

長興 郡道評議員選擧는去廿三日長興郡廳內에서開票한結果金偉賢氏가四十六點으로當選되엇고(兵營)

茂朱 郡道評議員選擧는去二十四日에開票한結果最高點으로李晟升氏가當選되엇고(茂朱)

城津 郡道評議員選擧投票는鄭縣에서發表한데依하면許楨氏가多點이라고(城津)

地方各校卒業式

綾州幼稚園 全南和順郡綾州耶蘇敎會內幼稚園에서는去廿三日午前十一時에十五名兒童의第二回保育式을盛大히擧行하엿다고(綾州)

鶴城公普校 蔚山兵營鶴城公普校에서는去廿三日同校講堂에서宮崎校長司會下에修業式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은男女合七十六名이라고(兵營)

安東普光校 慶北安東郡邑內西部洞普光學校에서는去二十五日午前十一時에第二回卒業式을同校講堂內에서擧行하엿는데卒業生數는二十五人이라고(安東)

安邊啓明學院 에서는去二十四日同講堂에서第一回卒業式을盛大히擧行하고優等卒業生二名을내엇다는바現學生數는五十餘名이라고(新高山)

始興興東學校 에서는第三回卒業式을去二十日에擧行하엿는데卒業生十九名中에尹順童朴鍾成君이優秀한成績이라고(始興)

新浦公普校 에서는去二十三日本校室內에서第八回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二十八名中尹鼎重君이最優等으로卒業하엿다고(新浦)

尙州幼稚園 慶北尙州郡尙州幼稚園에서는去二十六日該園講堂에서第一回園兒保育證書授與式을擧行하엿는데大盛況을일우엇다고(尙州)

群山學院 群山學院에서는去廿三日부터同校內에서第一回卒業式을院長李之煥氏司會下에擧行하얏는데今般卒業生은十四名이라고(群山)

海州高等女校 第一回卒業式을去二十三日에同校講堂에서盛大히擧行하엿는데卒業生十三名中朝鮮人은金明淑(一七)孃이라고(海州)

文武公普校 平山郡文武公普校에서는去二十三日第二回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數는男女合二十名中優等生은三名이라고(平山)

光進幼稚園 黃海道長淵光進幼稚園에서는去廿七日第二回保育證書授與式을當地禮拜堂內에서擧行하엿는데今番卒業生은男四名女四名이라고(長淵)

錦天幼稚園 에서는去二十日錦町佛敎布敎堂內에서第三回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은卅二名이라고(江陵)

東光女子學院 에서는去廿日同講堂안에서修業式을擧行하엿다고(江陵)

義崇幼稚園 에서는第五回卒業式을同禮拜堂內에서去二十二日에擧行하엿는데卒業生數는九名이라고(江陵)

江陵公普校 에서는第十七回卒業式을去二十五日同校大講堂內에서擧行하엿는데高等科五名中優等生二名普通科男子部六十二名中優等生六名女子部十二名中優等生二名이라고(江陵)

義崇講習院 에서는去二十一日에修業式을擧行하엿다고(江陵)

利原幼稚園 咸南利原郡利原幼稚園에서는去廿三日園長金珍璐氏司會下에第三回保育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은二十五名이오進級生은十九名이라고(利原)

利原公普校 에서는去廿二日卒業式을擧行하얏는데卒業生은六十四名이라하며優等生은六名이라고(利原)

永川幼稚園 永川幼稚園에서는去廿六日第一回保育式을本園內에서園長金武生氏司會로擧行하엿는데保育證을바든兒童은三名이라고(永川)

十月黨大會 解體를宣言

本黨은湖南線裡里에두고各地에散在한有名의人物들을網羅하야組織된十月黨은創來社會運動에만흔奮鬪를하여오든바去二十八日午後三時에定期大會를裡里自成組合會館內에開하고臨時議長李龍基氏의司會로會錄朗讀及經過報告가잇슨後同四時半에閉會하엿다더라(裡里)

◇決議案

一、本黨解體與否의件

局部的運動에서大衆的運動으로轉換할時機가到來하엿슴으로在來의局部的運動을하여오든本黨은解體를宣言함

湖成學校曙光 後援會를組織

全北金堤郡孔德面私立湖成學校는伊來十五個星霜에經營難으로無限苦楚를바더오든바今年卒業式을利用하야父兄及有志를多數히召集하고卒業式이맛난後에同校維持에對하야經濟的으로援助한다는意味下에서湖成學校後援會創立總會를開하고李振衡氏의司會下에規約을通過하고役員을選定한後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裡里)

◇決議=歲入歲出豫算額決定의件 會員募集의件

◇役員=會長李振衡 副會長全永柜

漁大津婦女夜學

成北鏡城郡漁大津篤志靑年孫在英氏의熱誠으로

奧丹後震災義捐 京城府取扱

三月二十五日
▲九十七圓太平通一丁目有志▲五圓野中譲三十圓初音町組合▲一百三十一圓五十錢警察官講習所職員巡査教習生一同▲十圓南山町一、二丁目有志▲三十三圓七十五錢元町二丁目有志▲四十二圓九十二錢公立南山尋常小學校職員兒童一同▲三百一圓八錢京城帝國大學職員▲四十五圓五十錢總督府林業試驗場職員▲五十一圓法學專門學校職員▲三十五圓九十錢高等法院檢事局▲九十一圓花園町有志▲二百圓京城電氣株式會社職員一同▲二十五圓京城駐在英國總領事代理▲一千一百七十圓七十錢朝鮮總督府職員▲一百二十八圓四十錢朝鮮總督府所屬官署職員▲二十七圓六十錢鍾路公立尋常高等小學校兒童一同▲小計二千四百二十六圓八十五錢▲總計四千十四圓四小門町田中丸治平

三月二十六日
▲二百十一圓三十錢黃金町二丁目有志▲七十七圓二十九錢京城第二高等女學校生徒一同▲二百四圓八十九錢京城公立普通學校十六校兒童▲四十圓八十錢漢江通第六區有志▲五十圓二十一錢元町公立尋常高等小學校職員兒童一同▲二百十三圓六十二錢總督府所屬官署職員(追加)▲四十圓三十錢總督府職員(追加)▲七十圓朝鮮郵船株式會社職員一同累計七千四百八十八圓二十三錢

鎭海共進會觀覽團募集

時日 四月九日午前(京城驛發) 同十日午後(鎭海驛發)
會費六圓 (往復車費、二日宿泊料、辨當 包含)
申請期日 四月五日外지
主催 朝鮮日報京城支局

江陵地方에 流行病猖獗

警察은豫防에努力中

江陵地方에는昨年부터毒感과腸窒扶斯가發生되어아직外지蔓延中인데警察衛生係에서는目下豫防注射를施行한다는데統計를보면犧牲者도相當히만흔中腸窒扶斯로死亡者는一名이라더라

江陵乾繭場增設

江陵郡內의蠶業統計가年年增加되어감과同時에需用者가正比例로늘어가나賣却所는郡所在地에一個所밧게업슴으로蠶業家들의便利를圖하야郡農會에서는交通이不便한玉溪面에乾繭場을設置한다고(江陵)

永興靑年黨 聯合委員會 『에메진』注射等件決議

永興邑永興靑年會와勞興靑年黨에서는去十九日緊急聯合執行委員會를中外日報支局에開하고衛生課의無料에메진注射에對하야討議를비롯하야左記事項을決議한後同午後一時에閉會하엿다더라(永興)

◇決議事項

一、에메진注射에關한件

今般衛生課로부터의無料『에메진』注射로死亡者續出한다는世評이藉藉하니만큼그眞相을調査하야市民大會를開하고臨討할일

一、永興解放運動團體協議懇談會에參加의件

一、無期延期의創立紀念의件

地方集會

●東下俱樂部臨時大講演=平北龍川郡東下面法興洞東下俱樂部에서는去廿四日法興義塾校內에서春期大講演會를開催하고委員長李昌林氏의司會로演士가各各雄辯을吐하야滿場聽衆의拍手喝采는勿論이오臨席한警官의注意도잇섯다 場外에人山人海를일우어近來稀有의盛況으로無事閉會하엿다고(楊市)

●城津公普校友會總會=城津公普校校友會定期總會는去廿一日母校講堂에서會長嚴錫吉氏의司會로今年卒業生入會와事業及決算報告가잇슨後役員을改選하고其他新年度豫算編成과事業計劃等新事項은新任役員에게一任하고閉會한後繼續하야會員懇親會가잇섯다고(城津)

●卒業生招待會=城津普信校友會에서는今年卒業한男女學生의招待會를二十四日午後八時부터母校內에서開催하고會長李孝根氏司會下에新校友에게對한勸勉과男女卒業生代表의答辭李演得氏의感想談이잇슨後趣味津津한餘興으로十一時半에閉會하엿다고(城津)

●蓮花洞基靑紀念式=平壤蓮花洞基督靑年會에서는來月五日下午八時에同會館新築落成祝賀式을兼하여第八週年創立紀念을擧行할터이라고(平壤)

原州消防出初式

原州消防組合에서는今年中行事로去十八日午前十時에原州郡下消防手六十名과警察官三十名이合同하야各種의難技와實地演習을終了한後無事閉式하엿다고(原州)

夜學會를開設하고請敎에普校卒業後婦女敎授하여오든바去二月三日부터日七의一部實習에熱心하엿스로써夜學會開設이후夜五時開式하고講演이잇섯는데一般人士들은氏의奉仕的熱誠을稱頌不已한다더라

海西紀行(四)

信川溫泉에서 安民世

溫泉旅館압해서 自動車에 나리자 硫黃냄새는코를찌른다 어느溫泉치고硫黃냄새아니나는데가업지마는 이溫泉場에서는 훨씬 硫黃냄새가난다 웃벗고돌어간새諸氏가먼저들어가고 牛步가들어가고나도들어갓다 물이매우더워서東萊溫泉과그熱度가彷彿하다 泉溫이攝氏五十度乃至五十八度이라하니 그럴듯할일이다 『에―뜨거워, 이湯에도도야지를튀해먹겟군요』? 『아! 소머리도튀하면은 막빗겨지는데요』 좌청牛步의머리는湯에잠기엿다 물에매우맷그러우니 硫黃質이만히석기엇슬것이다 本溫泉一斯中에

鹽化加里 一八·五
鹽化曹達 七六·一
硫酸칼시움 一二·九
硫酸曹達 一七·五
重炭酸마그네시움 七·九
重炭酸曹達 一五四·五

等이그의主要成分이라한다 이湯을마시면滯症이떨어진다고鄕土人이말하는것은 重炭酸曹達이 만흠에因한것을알겟다 溫泉에歸하야는 다시올에쓰기로하고 西團의景光도봄새업시그대로散策으로돌아왓다 宿所에서잠간들러 來訪한諸氏와함끠그後의大會經過를들으면서 한참동안休憩한後 八時지나열리는 講演會場에갓다 西山비탈에二層樓로結構가자못巨大한新明學校講堂을빌어서 演壇에올라보니 來會者가 約二百餘人이라한다 겨울과가튼치위에燈光이환한속에서講話가시작되다 牛步의新聞及新聞記者의使命에對한演說이끗난後에나는一般的으로朝鮮의表準과方針을말하고그쳣다 二層樓上에서茶菓會가잇서서 熱茶를마시면서懇談이시작되자 新幹會에關하야問議가만흠으로도아는데로는만히말하엿다 新幹會가時代意識을順應하야나온것인만큼 到處에反響이큰데 그대신責任者들의任務가큰것을말하엿다 新明學校長인金洛泳氏가陪席하야 한가지로오래동안敍話하엿고 밤이느저旅舍에돌아와就寢하엿다

十六日이다 일어나서洗漱하니몸이매우맛그럽고또건건한맛이잇다 이곳의샘물은모다鹽分이만허서濟州의맛이적고씻으면毛髮과皮膚가뻣뻣하여진다한다 그대로知友들이차저서쉬이고잇다가午後에牛步와金東赫兩氏는自動車便에沙里院을向하야京城으로떠나고 나는또腕車를놀아서信川溫川場으로간다 疲困한몸을좀쉬여가자는뜻이다 날이적이따뜻하고바람조차잔잔, 故로左右의山川을車夫에게 물으면서홍노西으로간다 비뭇·鳳勢가綿綿한九月山의連峰이西으로걸쳐잇는것을바라보며 白雪이아즉도燦爛한金峨山來脈을左로보면서飄然히간다 載寧平野가米穀의收穫인것은알아는바이지만 버섯늘고논畓內로들어가는牛車는오봄도어켜가튼가한時間以上이나걸려서다시溫泉에다다랏다

丁寧하게告別하는 車夫를보내고 大昌旅館의한방을잡어行具를노아두고 即時溫泉에들어간다 여긔는朝鮮人의旅館이오 溫泉도거의朝鮮人專用이다 浴客들의 돌면는소리가나온다 는드라케지는 湯館에서 여러名들이들고돌어가 넘드란浴槽를中心으로 白髮의老人이와새파란少年들이五七人이나잇스되더운김이소용도는硫黃내나는浴湯에서 壯大한궁덩이를칼우며처누어돌ㅅ스면서 『하나 둘 셋 너 헛! 百 兩百』하는流의沐浴노래를悠長하게빼여놋는것이두사람 세사람 내사람! 나처무슨 靄然이삼는듯한 印度河의湖邊에가서 梵唄를외우는行者들의 光景을目睹하는것가타여서 배아닌異國情調를자아내여 女湯편에서도나처우朝鮮婦人의 美人의『아리랑』흐르는것모양으로東萊溫泉[illegible]歌曲이並唱된다 追後로夕飯을對함새 食床에막놓만한것이또한行旅者의生活에는足하다할것이다 항상朝鮮人側의溫泉場의旅館이設備가不足하야醫鑑키不便하다하나 이도써도足하다할것이요 地方同胞의情况을알고鄕土的情調를맛보기에는藥審안旅館『宮館』보나썩나흠을것이다 海西의士女들이며 施醫實할沓업거니와 이러한特質은溫泉場理에서도나타나서 어찬지매우미돌독한멋이잇다 다만어쩌는某旅館의걸은主婦에게水利組合의 首職者란推定을바덧고 오늘은歡歡하야 입도예지아니한까닭에『日本손입』의代稱을바돈것이우술만한挿話이다

全仁川沸騰! 三千餘群衆殺到

◇京仁取合併反對市民大會◇

犧牲者나도驀進을絶叫

경인취합병반대시민대회(京仁取合併反對市民大會)는 긔보와가티 이십구일 오후여섯시에인천빈뎡가무기좌(仁川濱町歌舞伎座)에서 열리엇는데 당각전부터 구름가티모혀드는 군중은실로 삼천여명에달하야 장내는순식간에 립추할여디가 업시만원이되엇고 장소의 협착으로인하야미처입장하지못한군중은장외에서 주먹을불끈쥐며 고함을질러부근일대는 인산인해를 일우엇슬뿐아니라 한울이울고 땅이울뜩이는듯하엿스며 장내에는『경인취반대』라고대자특서한오색긔도 련정파벽을 장식하엿스며연단 정면에는 인천삼십단톄의반대결의문을 써부첫는데보기만하야도 긔세가 늠늠하고 살긔가 등등하더니 력무위원장(力武委員長)의사회로개회를선언하고김상훈(金相勳)리희명(李喜明)리동호(李東浩)손양한(孫亮漢) 김성운 (金成運)오씨외이십여명의연사가차례차례로 등단하야『경인취를 합병함은 단연코 인천을 망케하는것』이니우리는 최후일각까지라도 분투하야 이를뎡지시키지안흐면 우리는 차라리죽는것만 갓지못하매병합총회인삼십일일에는다소희생자가나드라도맹진하자』고 열변을토하매 련디가문허지는듯 박수소리가사이로『중역을죽여라』하는비창한고함소리가 이곳저곳에서일어 원장내는 름름특하얏다

警察部에서應援隊派送 重役身邊을警戒

인천서에서는총출동경계 會衆行動을嚴重監視

미리부터 이러한광경이 일어날것을안 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 덩복순사 이십명을인천에 파견하야 인천서원과합께 긔회의장내장외를 물샐틈업시 경계를하며 만일을념려하야 회사측중역의 신변을주의하는 일편으로 군중의행동을극도로감시하엿더라

總監態度豹變

합리합법은인가할모양

◇『直接行動도不辭』

권긔변사중 모씨의말을 들으면 본시 반대위원이 정무총감(政務總監)을방문하고 진정을한결과 병합하지못하도록 하겟다는 것을 변명하얏는데 정무총감이 동경갓슬때에 병합파 위원들은 동경으로가서 정무총감과 엇더한협의를하얏든지 정무총감은 태도가돌변하야 또 합리합법뎍병합(合理合法的併合)이면 인가를 할수가잇다고 하얏스니 우리는 결국 직접행동이라도 사양치 아니하고 분투할터이며동시에 희생분자의 행동을극도로감시하야볼여의회에는상당한 처재라도가하겟다하더라(이십구일오후팔시인천시국면화)

養正副敎長辭任과 同校生紀念品贈呈

양정고등 보통학교(養正高等普通學校)에 십유여년간 부교장

愛子그리는 六十歲老媼

토굴속에병사디경

본적을 경남함양(咸陽)에 두고현주부는 전북리리(全北裡里)디방에와서 유리하든박성녀(朴姓女)(六○)은 오륙년전에자긔아들정충관(鄭忠寬)이 가집을나간후로지금까지 소식도 업고박성녀는의지할곳이 업서 사방으로유리걸식을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반신불수증까지 들어 지난칠월에 호남선리리역에잇는 자긔의일든사람의집을 차저왓스나 주인역시 빈궁한처디에 엇지할수업서 근처산림속에다 토굴을파고 그곳에 거처하얏는데 박성녀는그속에서 자긔아들의 소식을기다리며 이세상을 저주하고잇스니 생명은 몃칠이 지나지못하리라더라

音樂歌劇大會

삼소년회의주최와 金化支局後援으로

김화삼소년회 (金化三少年會)주최와 본보김화지국후원의 음악강습회(音樂講習會)는지난십륙일부터 김화청년회관에서 렴석정(廉錫鼎)김정중(金正中)두선생의 지도로 회원삼십여명이오십여종 (五十餘種)의음악을배웟는데 신춘가절을 맛는이때에일반의 유패를도읍기위하야 소년소녀음악가극대회 (少年少女音樂大會)를김화삼소년연합(金化三少年會聯合)으로도 주최하고본보김화지국에서 후원하야 지난이십륙일부터 김화청년회관에서 송고학생(松高學生)렴석정(廉錫鼎)군과김정중(金正中)량군의주장으로 흥미잇는음악소리와 자미스러운 소년소녀의가극(歌劇)으로 관중이수백에달하야 장내가복잡하엿스며 일반유지의 동정금도 오십륙원이엇는바 지난이십칠일까지 대성황으로진행하엿는대 일반유지는일할이 부족함을 유감으로생각하고 이삼일간을 더계속하라함으로 주최측에서는 계속하기로하얏스나 당국자들의 간섭으로다시 허가를어더 이십팔일도 연긔하엿더라(김화)

貧困中夫婦不和 悲觀自殺한艾妻

어장에와서정종이나팔다 남편과말다툼하고비관해

踵出하는生活苦의殺風景

지난이십사일경북영일군동해면구만동(慶北迎日郡東海面九萬洞)에 거주하고원적을동군포항면 포항동(浦項面浦項洞)에둔 최봉선(崔鳳先)은 생활난에이기지못하야 자긔의 안해송분남(宋粉南)을 다리고 어장의시긔를좃차무슨 도벌이나할가 하야지난십이월부터 권긔 구만동에서정종(正宗)이나 팔고그럭저럭지나다가 지난이십사일에 최봉선의 안해송분남은 그집에 아모도업는 틈을타서 자긔의거주하는방안실영에 목을매고 무참히죽엇는데그원인은자긔남편과말다툼한 뒤에 염세증이생기어비관하고자살한것이라더라(포항)

中國紙幣 偽造團公判

고등공업학교서 사진긔도어더서

시내 화천뎡(和泉町) 일백륙십륙번디룹택정치(溝澤庭治)(三〇)과 한강동(漢江洞)십삼번디의 륙십삼호매괴길병위(梅崎吉兵衛)(四八)본뎡(本町)이뎡목 사십구번디 귀도륭(幾度隆)(三○) 냉동(冷洞)칠번디리의농(李毅鍾)(二九)시외 고양군룡강면아현리(高陽郡龍江面阿峴里)지상민(池尙敏)(二二)등의 다섯명은 작년십이월 초순부터 동삼성관은행(東三省官銀行)에서발행하는 태환권을 위조하기로공노한후 동월하순부터 금년이월하순까지 매괴에게서 비용으로삼백이십원을 갓다가 동판을만드는긔구와약품을 사다가룡택의집에서위조에 착수하얏는데 지상민이가 고등공업학교(高等工業學校)에가서 사진긔계까지빌어다가 사용한것이 발각되어이십팔일오전에 경성디방법원 뎨사호법뎡에서백(白)판사의심리와 원교(元橋)검사의립회로데일회 공판을개정하얏더라

月尾島近海에서 汽船一隻遭難

다행히승조원은무사해 外米百八十石水沈

지난이십칠일오후두시삼십분경에 긔선(汽船)데칠(第七)평영환(平榮丸)은 본인 야구문일(野口文一)의소유인 부선(艀船)대정환(大正丸)과 경뎐리길(慶田利吉)의소유인 부선(艀船)창고선(倉庫船)에외국미(外國米)일백팔십표를 실고 인천소월미도(小月尾島)서편바다를통하야인천으로 들어오다가 발동긔선(發動機船)안성환(安城丸) 오기를기다려 계류(繫留)하고 잇든중 서북풍이불며 파도가심하야 권긔두배안으로 물결이침입하야 결국외미(外米) 일백팔십표는 물결에잠기어 약이백원의 손해를내엇다하며 승조원(乘組員)은무사하엿는데그때마츰그부근으로 항행하든팔미환(八尾丸)의구조를바더입항하엿다더라(인천)

投書바든 楊西面長을 도령에서됴사

지난십구일에 양평군텽 서무과장(楊平郡廳庶務課長) 박성무(朴聖武)씨는 도령으로 부터온 장문의투서한장을가지고 동군양서면장 리필상(楊西面長李弼相)씨에게대하야 극비밀리에장시간조사한사실이잇섯다는바군당국에서는 이에대하야 절대비밀에 부침으로 내용은 확실히알수업스나어느방면에서탐지한바에의하면권긔리필상씨가중심이되어설립된공제조합(共濟組合)에대한사건을 위시하야여러가지[illegible]고 주금(株金)까지도 차저낼길이 업게되엇슴으로 주주측에서는 분함을이기지못하야 조합장을상대로 소송까지 시작하얏스며 또는면장에대한 비난분구가공동변소(共同便所)에까지붓게되어 일반은외후파 비평이자못놉하가든중 근일에는 투서까지잇섯다는 소문이 게 되엇다더라(양평)

미운시앗쫏는 奇想天外의方法

남이나흔자식을제가나흔듯이 몸에가지고지내다가필경발각

六十圓에赤兒買收

경남고성군텽(慶南固城郡廳)에 근무하는 김정언(金正彦)(三四)의집에서는 지난이십오일 밤아홉시경에 일대풍파가 일어낫다는데 이제그자세한사정을 들은즉김정언의처 박재숙(朴再淑)(三○) 은 작년십이월 삼십일에딸자식을하나 나핫다는데 그것이자긔가 나흔딸이 아니오그이웃에잇는 김태민(金泰敏)이란사람의아이 배인것을알고 륙십원을줄것이니 자긔 시키는대로하여달라고 부탁한후 자긔도아이를배인것처럼 보이기 위하야 배에다가 솜을둘러누구던지 인정할만하게맨들어서 지내오든바 김태민의안해가 해산하자 즉시가져오게되엇는데 김태민은 자긔나흔자식이 간데가업슴으로 자긔안해를 졸르는즉 동군상리면 부포리(同郡上里面芙浦里)에 사는 어떤사람을 주엇다하기에 태민은 자긔자식을찻기위하야 부포리에가서 백방으로 탐문하엿스나 도모지 알길이업서다시집으로 돌아와 아모리 자긔처를 힐문하여도 실토를하지안흐매 백방으로 탐문하든중이소문이 점점 전파되는동시에 당디경찰서는 아이를압살이나 아니하엿는가 하야태민의 안해를다려다가 취됴한결과 전후사실이판명되엇다는데그내막에는형형색색의비밀이잠복한듯하며 공모자도 한둘이아닌모양이라는바그원인은권긔김정언은 아즉까지 자식을 나치못한고로 삼년전에 첩을어더 자긔집에다려다노코 자식나키를 바랏는데 질투에는 눈이어두운 본처는 첩에고커그와가티 신출귀몰한 술책을쓴것이라더라(고성)

花鬪하기爲해 窃盜하다逮捕

지난십팔일평양경찰서사법실에서는 학생모자를쓴 소년절도단세명을데포하야엄중취됴를하엿는바 그자들은 부내상수구리(上水口里)김관수(金寬洙)(一八)행뎡김준긔(幸町金俊起)(二三)바팔병(朴八並)(一六)인데 이자들은 지난달중순부터 부내청창양행(晴昌洋行)을위시하야각상뎜으로다니면서 삼십여건 현가오백여원의물품을 절취하야가지고 부내고물상으로다니며 물건을팔어가지고 화투를하다가 발각되어데포되엇다는바 그들은 괴악한자들에게 유인되어 화투하려고 그와가튼일을 하엿다고한다더라(평양)

大豺를捕獲

경북김천군구소면구례동(慶北金泉郡求所面求禮洞) 김사업(金思業)의집에서는지난이십일오일 오전두시경에 도야지울에 들은 큰독머를 잡엇다는데 신장이 사척폭은이나되고 중량이 팔관이나 갓가워 근래에보기 드믄 큰독머라고(김천)

元山行旅屍

지난이십칠일오전여섯시경에원산부남촌동(元山府南村洞) 남양사진관(南陽寫眞館)압헤엇던자한명이 죽어넘어진것을 지나가든 사람이발견하고 즉시주재소에 계출하엿슴으로 경관이현장에가서 검시한결과 그는주소성명이 분명치못한 한오십세가량이나 되는한로동자가병사한것으로판명되어시톄는부령에인도하엿다고

大分에大火 卌戶가全燒

지난이십칠일오후다섯시경일본대분현대야군삼중뎡 자중촌(大分縣大耶郡三重町字中村)무등죽삼랑(武藤竹三郎)의집으로부터불이 일어낫는데 그때마츰맹렬히 부는바람으로 삽시간에삽십여호가 전소되엇다는바 원인과손해는 목하됴사중이라더라

『從叔母毆打』 충남공주상반뎡(忠南公州常盤町)김종옥(金鍾玉)(三五)은 지난이십삼일오후팔시경 자긔 당숙김사인(金士仁)의집에가서 그당숙모 전씨(全氏)(二五)를무수히란타하야전씨는 즉시혼흡을 못치못하게되고 김종옥은 마츰행순하던경관에게체포되어 즉시경찰서에 인치되엇는데 이제 그내용을듯건대 권긔김사인은 원래넉넉지못한사람으로 근근히 생활하야오던중 그안해전씨가 수년간콩나물장수를 하야 만치안흔저금을하게되엇던바 권긔 김종옥은 그당숙 김사인에게 차집재산이잇다고 각금위협도하며 불량한행동을하야 오던바 그날은 술이만취하야 가지고 그당숙의 집에가서 동일히할말이 잇다고 횡설수설함으로 권긔전씨는 그당질을 대하야말하기를 네!지금은 술이취하엿스니 할말이잇스면다음날와서 하라한즉 김종옥은그말을 분개하야 그대로막 따리엇다는데 권긔전씨는 의사의진찰을바든결과 생명에는 별관계가업다고(공주)

柳眼鏡春하는佳節에 毒霜맛난一朶花

‖맛고도바라든오라비의악독한손에 걸리어애뜻한원한품고창해에싸저‖

同氣로悲哀의숫지은宋孃

공리의순환함을 딸아 우주의만상이 모다미화(美化)하고 순화(醇化)할즘철는 왓스나 하루라도살고저 애쓰며 더잘살기를힘쓰고 죽기를실혀하는 모든인생에게는 생의충동과 환락의욕구가더한층고됴(高調)하게될평화의『씨슨』은 지금이 한창때이다 그러나 쏫으로치면 아직도다피지못한 십칠세의처녀이요 게다가방금 마산사립모녀학교(馬山私立某女學校)의륙년생으로서 수한청적을가지고 인생환락의 쏫동산을향하야 밤낫으로 자라는동에잇든 부내오동동 송학석(午東洞宋鶴錫)의 누의소순(小順)(一七)이란처녀는 지난이십륙일밤만뢰(萬籟)가고요한때검푸른물결이 넘노는 마산압바다에몸을던저해수도에 오열(嗚咽)할때엇지하며 죽지안코는 아니되엿든가? 박행한운명의소유자이엇던가?

그는나이 겨우아홉살 되엇슬때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의몸이되어 금옥가티 사랑하여주는 올아비로권긔송학석씨가잇는외에둘재올아비로송희석(宋喜錫)이 가잇스니 그는 일즉식산은행마산지뎜(殖銀馬山支店) 행원으로도 잇섯스나 품행이도 그는오히려[illegible]에 마음이 팔리어 거대한금액을 소비한후 은행으로부터쪼겨어 나오자 금권에졸이고 류흥에목말라 가이업시헐덕어리는 자가되엇다 써마츰부산에잇는 어떤일본인의 상뎜뎜원으로서 작년어느써부터 마산을왕래하며도량을쓰고지내는 동래(東萊)출생의 박모를알게되어 회조원석에가되자 은행의채금을 판상하여주는조건으로 당혼한 소순의미인의집을찾는 유일한 동지자를 처가 잇슴도불구하고 긔혼자인 권긔박모에게 희업고 순결한 소순을 주기로하얏다 그리하야그리설는 소순을딸래어 약혼개월물자긔의집에 류숙케한후 감언권에는 소순이가다니는 학교의교사한사람을 청하야 자긔집에서 약혼의형식을빎게하얏다 그러나 아모것도모르고 올아비에게 매종하든 소순으로도 날을거듭할사록 박모가 한개의탕자(蕩子)인것과 올아비가 자긔를한낫상품(商品)으로팔게된것을 알게되자 어에격렬한 반긔(反旗)를 들어항의의듯을이켯든것이라한다

長成하자주밀刑當코 憤然히出家彷徨

이에대리(大利)를 꿈꾸고 호을로만족을늣기든 오라비 희석은 의외에 절망의소리를 듯게되자 백방으로 달래어도보고 위협노하여보앗스나 맛맛내 듯지안홈애 장작쪽으로란타도하고 자긔의목을 매어죽는다고 얼잘을하여도보앗스나 굿기렬석가든 소순의뜻은돌께아술수는업스매갈사록 커지는것은 소순의번민뿐이엇다 게다가보기도실흔 박모는 가며 소순을괴롭게하고 오면악취를피워 못하야 죽기루터 십여원권에집을넘나고모와동무의 집으로도방황하며 하염업시 쉬흔신세를애소하다가도 화가나면 산으로돌른돌ㄴ다니면서 밤을 새인때도 한두번이 아니엇다한다

最後로學友尋訪 뜻잇는作別人事

그가 죽엄의길을찻든바로그날은 오권일목이 그의학우인표뎡(俵町)나계주(羅桂珠)양을차저 와서 시드른 장미쏫과가티애수에차저 얼골도날이맛도록 이야기하며 노는중에는세상이귀치안코모다 나를먹으라는 악마와가트니 차다리죽고말겟노라」는말과날이 저물어며나올때 에도 「잘잇거라 나는간다」는무의미하면서도 가슴쓰린 인사를남기어두엇스나 이말의 깁흔뜻은이비극의 주인공이되는 소순의자신외에는 알사람이 누구이엇스랴!

當時에物論紛紛 누구나옵바唾罵

마산경찰서원으로부터그의시톄를건저내든때에는 무려 수천의군중이모혀 누구나 그의정경을동정하지 안는사람이 업섯스며 마산의 거리에는 군대군대사람이모혀서서 삽시간에 들든이분분하야가지각색의풍설이비등한중에도그의동류들은모다동정의눈물을 흘리며 천진스러운이삼[illegible]새어 오는말은거의다죽생가튼그옵바의소유를비밀가티타매하엿다건저내인그의시톄는천추의원한을실은한쪽의유서를옷고름에단단히매엇스니시톄와가티 저저서분명히알수는업스나대개는종교가를리고의지가맛지안흔 며일개의부랑자인박모에게아모리도이잇다하든일생을맛길수는 업다는뜻으로 그가다니든학교에서 가장신애하든 김선생에게 최후애소로 남겨둔것이엇다 여간그는 야릇답가로 이름잇든 한송이의 쏫봉오리도써 아니모진서리를마저고해풍랑에 천추의원한을품고애처롭게도시들어버리고만것이다(쏫)

初音町棄兒屍

이십팔일오후한시경에 엇더한자의소위인지시내초음뎡(初音町)개천에조선계집애의사톄(死體)하나를 내다버린것을소관본뎡서(本町署)원이발견하고 목하범인을엄탐중이라고

東拓集金人 六千圓橫領逃走

부산경찰은각디에수배 犯人踪跡은五里霧中

부산부영뎡동 양덕식회사 부산지뎜집금계홍지주(釜山榮町東洋拓殖會社釜山支店集金係洪祉疇)(二六)은지난이십일경 조긔주(曹祉周)외 두사람에게 현금륙천칠백사십여원을 집금하야가지고 도주하엿다는데 부산경찰서는 수하각디에 수배를노하범인을엄탐중 이라더라(부산)

自働車放置

본뎍 윤중

주군충주면대수뎡 (忠州郡忠州面大手町)에두고 시내계동(市內桂洞)일백삼십구번디 박로영(朴魯英)의집에자동차운뎐수로잇는정긔준(鄭基俊)(二一)은이십팔일 오후열한시경에 경데(京第)이페팔십호의 자동차를시내 종로서이오태서관(太西館) 입구에 머물러 논채 술이취하야 료리집 기생집으로 몰아다니느라고이십구일오전열시까지 자동차를 방치해노핫다는바 이십구일정오에 종노서에서는 권긔정긔준을 호출하야다가 엄중한설유를한후내어보냇다고

卒業式祝辭가 不穩타고拘留

동아일보 제주지국긔자 윤석원(尹錫沅)씨는 지난이십일일 오전열시 제주공립보통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의 장래를축하하는동시에 우리의 사명(使命)을잇지말아달라는 의미의 축사를하얏다가 동일오후륙시 당디경찰서에소환(召喚)되어복은하다는 구실하에 이십일구류라는 서장의 즉결언도를 바닷는데씨는이에불복하고 뎡식재판을 요구한바 지난이십오일 상오열시에 광주디방법원제주지텽(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형사법뎡에서도변(渡邊)판사와죽삼(竹森)검사립회하에 개뎡하얏는데 관사의 피고에대한 주소·성명·직업등심문과 검사의 론고가잇슨후 축사내용을읽어 심문하고 검사의 이십일구류구형이 잇섯는바 변호사 최원순(崔元淳)씨의변론도 잇섯스나 판사의언도도 역시이십일구류임으로 씨는 이에불복하고 다시 공소하리라하며 당디경찰서에잇는 모형사의말에 의하면 이십일일 씨가경찰서에 소환되엇슬때에 설유만하고 즉시내어보내라는 작뎡이엇스나 씨가넘우 리론을캐임으로이십일구류처분을하얏다 더라(제주)

順天道議選擧에 不正事實暴露

부정한사건이발로되것을 군당국은묵과하야달라고

一般民衆은不平頗多

전남순텬(全南順天)군도평의원 투표에 부정사건이 발로되엇다는데 군당국은 이일을절대비밀에부치나 결국사실이 발각되엇다는바이제그자세한내막을알어보건대지난이십삼일에본군주암면(本郡住岩面)사무실에서도평의원을 투표한후에 일반은집에 돌아가자 면장과권여서기 량인이투표한것이든봉투사매를찢고 투표용지오매가 남은중에서 사매를 자긔들친필씻은 사람으로 적어너코 남모르게 군당국으로 발송하엿든바 이사실이 이십삼일 본군군텽에서 개표당시에발각되엇스나 군텽당국자들은 부정투표는 사매뿐이니주암면(住岩面)을제하고 투표점수가오십칠점사십구점의차가잇슴으로이드다도덕점이부족하니결국오십칠점이 최고로하고 이사실을절대비밀에부치어묵과하기로한것을 일반민중은 알게되어군당국의태도를 주목한다더라

例年一石賭租에 五斗式加捧決定

사음의간계로그리되어 六十小作人殺到哀願

홍성(洪城)서 현재 팔십만원이란 대자본가요 일류금혼고리대금업자(高利貸金業者)중서의길(中西義吉)이란 일본인의 집에서는 지난이십오일 오전열시경에 오륙십명의농민이 쇄도하야 일대풍파를일으켯다는데 이제자세한것을들으면 중서의 토디가홍성군금마면송암리(洪城郡金馬面松岩里)에 수백두락이잇서 그동리사람전부는 이디를 소작하야 수백인구가 근근이생활하야 오든중 금춘에와서는 동군동면신곡리(同郡同面新谷里)에 사는최성옥(崔聖玉)이란자가중서의십부들군 모 리갑준(李甲俊)이란자에게 운동비로 현금백여원울소비하고 사음을어든후 례년에추수일백삼십석에불과한것을 금년에일백팔십석 명년에는 일백구십석 재명년에는 이백석의도조를 디주에게 납부하겟다는계약을하고 토디소재디에가서소작료를 작뎡하야 례년도조 한섬에대하야 오두식을증가시킴으로이것을당한소작인들은이와가튼부리한소작료는지출하고는도뎌히생명을부지할수업다하야 오륙십명의소작인이 애원문을작성하야 련서날인하야 가지고 디주되는중서에게 제출하얏스나 한등요파는업시 이왕작뎡하야준것이니할수업다는거절을 당하야엇음으로 이에 흥분된소작인들은 이왕죽기는 일반이니중간에든자들을 따려 죽이다고한참 풍파를일으키다가 헤어졋다는바 이문데가 장차엇지나해결될는지 사회단톄와 및 일반시민들은 매우주목한다더라(홍성긔자단발)

金淇正聲討 演說은警察禁止

두보▮김긔정징토시민대회 (金淇正懲討市民大會)에서주최하려한 바 김긔정 죄악성토연설회 (金淇正罪惡聲討演說會)를 지난이십칠일에 개최하기로되어 모든 준비를하여오든중 경찰당국으로 부터집회금지명령을한바되어부득이중지하엿다더라(운성)

刺身鬼窃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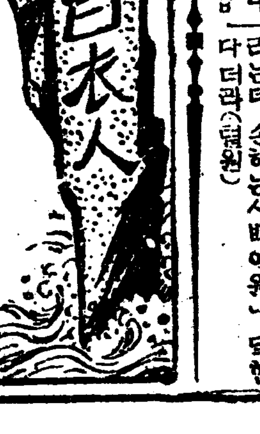
시외고양군은평면보암리 이백팔번디(高陽郡恩平面寶岩里)에사는 류영배 (柳永培)(三○)라는자는 이십구일 오전여덜시경에 시내청운동칠십오번디(市內淸雲洞)잡화상 주덕환(朱德煥)(二三)의 가가에 사람이업는틈을타서 비둘기 표담배 두상자와 그엽헤잇든손금고하나를 절취하야 도주하든것을 청운동파출소의 류무보(柳茂本)과리(李)의두순사가 즉시그 뒤를추적하야 톄포하야다가 목하종로서에서 엄중취됴중 이라는데 그자는독모두히『[illegible]』중독자로인이틀리어 그와가티 절도를 범행한 것 이라고

鐵原綢緞窃盜

지난이십칠일밤철원군철원면중뎡(鐵原郡鐵原面仲町)십구번디에서 주단포목상을하는 전녕익 (全寧翊)씨상점에 엇던자가침입하야 [illegible]건데 권긔상뎜뎜원들은 깁흔잠에취하엿슴에 상뎜빈지문을 뚤고들어와서 주단수십필과 우양목여섯필외고무화 수십켜레를반하기에 곤난이 되엇던지 우양목여섯필과 고무화[illegible]를두고 갓다는데 사실이발생되자 당디경찰서에서는범인수사에 대활동중 지난이십팔일에는 부근에잇는 [illegible]를 인치한후엄중취됴중이라는데 손해는사백여원에 달한다더라(철원)

映畫小說 白衣人 (五十一)

李慶孫 作



정애를 일허버린후의 정식이는 정신이 더욱이어지러웟다 건너방에누어잇는송장도면대하기어려웟거니와 드나들며 재잘대는 동리집쪽머리들도 원수와가티 보기가 실혓다

그래서 온천장으로 피하야기생집 안방에서 하로이틀을 묵엇다 그 기생은 나히가 자긔보다여섯살이나 더한보로어렷슬때는 자긔를 업어주려도잇다고하엿다 그는 자긔의피를빨어먹으라는듯이 조와하엿다 그럼으로 두사람은 풀밧테동구는배암과가티 유탕한 밤낫을되푸리하엿다 세상의『모두히네도 마저 보앗다 세상의 전폭(全幅)이농락주사로 보히는 사흘재되든날오정 때이든가

『웡!―웡!―웡!―웡!』

『웡!―웡!―웡!』

상여군들의 발마치는 소리가저편마을에서 술렁거리엇다 정식이는 기생의허리를쉬고 구조선에올라가는 파선재비숫이 엄된채밑어가며 창문을열엇다

독갑이작란에 목두짝시 모양으노 오색이럼동한 상여의한채가 맘은시사길우에서 양춤의보법(步法)을 배호고잇섯다

이따지 탱정하고도 이놈이무사함과 무서워올고십흔 정식이의이마는 기생의젓가슴에 백이어서 버르를떨엇다

모―든사정이 자긔를 그모양으로동래에 가만두지는 안흐리라하야 서울로와버린것은 그이튼이튼날이다

정애를맛나서 문허진 인연을회복하라하엿스나 잇는주소는 아직알길이 업섯다

공부는하기가 실혓고 우연히맛난것이 하숙에 자조들오는 (동무들자자오는) 배우들이다 이야이들듯고보니시국이니가극이니돈천원만잇고보면손쉽게될것가탓다 집이아버님에게 사업하겟스니 자본좀대라하야 이몹을한판생명에와인긔와 쏫밧안에서 웃고지냅어하는생각에

『글세요......하여볼가요』하면서 응하는듯마는듯하엿더니 조혼배우감이 잇다하며 다리고온것이 바로정애이엇든것이다

『엇더케 또극장출입을하게되엇서요』

정식이는 올다와서 주소를느갑갑하엿다는 성명을 놀어논다음 지낸날 정다웁든일을 [illegible]가지고 그가티 통곡하엿다

『놀라갓섯지 무슨......』

『글세엇재서 놀라갓세요』

『몰라요 아유......』

그러한 대화를교환하는엽에 안저잇기도 미안한남배우는 가겟다하면서 일어섯다 말리기도실흔정식의 인사는지극히 간단하엿다

『그럼 또뵈옵시요』

이순간 정애는 생각하여본바안에서 일어서기만하엿다

그래서두사람은 방문밧고로 나섯다 정애도작별을 표하는듯반

이밤에 또다시예전과가튼 인닐을무조건으로 잇느여 나가도아무일이 업슬시 약간섭섭하느것도이켜는모다풀려버린터이 쉬건상 려한케복을내노하보앗다

그러나 나히젊은인간들이 인생문데를생각한대야 경우에움히노흔 구름다리와가티 실속업는것일뿐이다

자긔의뜻대로 판단을 나리어 그편에다가 자긔의 피를바르고 살을 부처야만그것이 해결이지 그들어린이에게는 영원히 올흔길을 알리야 업슬것이다

그런데 정애는지금 갈라지는 다시맷든 어느편한곳을위하야 노력하랴아니한다 이것이 서방녀자와는조금다른구석이다

불쏫가티 뛰어들어오는 정식이가 키쓰를 한다

『아이......』

『아이?......』

『아이......』

무심중 실흔 표정을하든정애는 련인의엽헤 이러는 법이아니라하야 얼른 고치어해해우서보혓다

『요런! 주소통지도 안하고......』

사나히는 원망의 살충이라는듯 이놈오는 입술에다가 힘을주니 입술을깨문다

『아야......』

정애도 그가티 가벼운원망으로 한마듸욕하고 십헛다만 말을쏘내면 목몸맨사람이 련상되어하여서그만두엇다

자긔들의 [illegible] 거립사가 연(ㄱ)자로 휘[illegible] 벽에하나가 독토록크게 비쳣다

敎禪———[illegible]